더불어민주당 2022.7.6.(수)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보도자료
	담당 : 가상자산 특별대책 TF 김병욱 의원실(02-784-3670)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가상자산특별대책TF(김병욱 팀장) 출범

- 가상자산 거래소 투자자 보호 정책 점검 및 입법 방향 검토

-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을 통한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산업 발전 도모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은 오늘 '가상자산 특별대책 TF'(팀장 김병욱 국회의원)를 구성하고 출범시켰다.

가상자산 시장은 저금리 기조 속 코로나19로 인한 유동성 확대가 맞물리며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해 시행된 테러자금 조달 방지 목적의 특금법 이외에는 가상자산 관련 법적·제도적 장치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규제의 사각지대 속에서 내부거래, 해킹 등 가상자산 관련 크고 작은 사건이 발생했고, 최근 루나 사태까지 터지며 가상자산 관련 투자자 보호 이슈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테라-루나 사태로 인해 각국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미국과 유럽이 가상자산 규제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럽연합(EU)은 가상자산 규제안에 합의하고 본격적인 시행을 앞세웠고, 미국도 연내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틀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다.

가상자산 거래는 국가의 경계가 없는 만큼 각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경쟁도 치열하고, 이용자 보호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만큼 우리나라도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신속하게 마련하여 이용자는 보호하되 산업은 건전하게 발전시켜 글로벌 경쟁력 확보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에 출범된 민생우선실천단 '가상자산 특별대책 TF'에서는 제도적으로 정비되지 않은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자자 피해를 직접 점검하고,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점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끝

2022. 7. 6.

민생우선실천단 가상자산 특별대책 TF 팀장 김병욱